

네이마르 vs 손흥민 ... 21살 천재들 격돌

홍명보호, 내일 밤 8시 브라질과 평가전 ... 나란히 왼쪽날개 출전



네이마르



홍명보 한국팀 감독
"14년 전의 매운맛 보여주겠다"



스콜라리 브라질 감독
"11명 모두 위협적 화끈한 공격축구 보여주겠다"



손흥민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사상 첫 원정 8강 진출의 대업 완성을 꿈꾸는 홍명보호(號)가 '삼바축구' 브라질을 상대로 분선 무대에 대비한 확실한 예방주사를 맞는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12일 밤 8시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내년 월드컵 개최국이자 국제 축구연맹(FIFA) 랭킹 8위인 브라질과 평가전을 치른다. 지난달 동유럽의 강호 크로아티아 평가전에 이어 강호들과의 릴레이 열투다.

FIFA 랭킹 58위인 한국은 역대 브라질과 총 네 차례 맞붙어 1승3패를 기록하고 있다. 1999년 3월 친선전에서 김도훈의 결승골을 앞세워 1-0으로 이긴 게 유일한 승리의 추억이다.

이번 평가전을 앞두고 한국은 객관적인 전력에서 한참 뒤진다. FIFA 랭킹도 무려 50계단이나 낮은 뿐 아니라 선수들의 몸값에서도 브라질 선수들이 8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칫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칠 수 있지만 브라질전을 앞둔 태극전사들은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다. 14년 전 승리의 기운을 발판 삼아 홈에서 첫 승리의 기쁨을 맛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홍명보 감독은 브라질 평가전에 대비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파문으로 한동안 대표팀 소집에서 제외된 기성용(선덜랜드)을 비롯한 유럽과 선수 대부분을 호출하며 총력전을 예고했다.

홍 감독은 이번에도 전방 공격자원 구성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팀의 고질적인 원톱 스트라이커 부재 논란 때문이다. 4기 홍명보호에는 구자철(볼프스부르크), 지동원(선덜랜드), 이근호(상주)가 원톱 자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도 전천후 포지션이 가능한 '구자철 시프트'가 전술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홍 감독이 구사하는 4-2-3-1 전술에서 원톱 스트라이커는 지동원이 먼저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구자철은 뒤를 받치는 새도 스트라이커로 포진할 공산이 크다.

과·우 날개는 '손세이셔널' 손흥민(레버쿠젠)과 이창용(볼턴)이 나서는 가운데 더블 볼란테는 런던올림픽부터 호흡을 맞춘 기성용-박종우(부산)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포백(4-back)은 박주호(마인츠), 김영권(광저우), 홍정호(아우크스부르크), 김창수(가시와)로 구성될 전망이다.

손흥민과 지동원 자리에는 언제든 김보경(카디프시티)과 이근호가 나설 수 있고, 왼쪽 풀백도 상황에 따라 오버래핑 능력이 좋은 윤석영(퀸스파크 레인저스)으로 대체될 수 있다. 골문은 정성룡(수원)이 지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는 브라질 대표팀은 베스트 11 모두 위협적이지만 단연 네이마르(바르셀로나)가 위협적인 공격수로 손꼽힌다.

네이마르는 지난달 11일 '강호' 포르투갈과의 평가전은 물론 이에 앞서 치러진 호주 평가전에서도 2경기 연속 골맛을 보며 절정의 감각을 과시하고 있다. 왼쪽 날개인 네이마르는 지난해 런던올림픽 4강전에서 브라질 올림픽 대표팀 공격의 핵심 역할을 맡아 팀의 3-0 승리를 이끌었다.

브라질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나설 조(아틀레치쿠 미네이루)도 경계 대상이다.

2007년 브라질 대표팀에 처음 뽑혔지만 백업 자원으로 출전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한 조는 올해 컨페더레이션스컵에서 부상으로 빠진 레안드로 다미앙(인테르나시오날) 대신 발탁된 이후 골 행진을 펼치고 있다.



LA 상대는 세인트루이스

내일부터 MLB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류현진(26)이 뛰는 미국 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NLCS) 상대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로 결정됐다.

세인트루이스는 10일(한국시간)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부시스타디움에서 열린 내셔널리그(NL) 디비전 시리즈(5전 3승제) 최종전에서 피츠버그 파이리츠를 6-1로 꺾었다.

승패를 거둬 주고받는 광장전 끝에 2승 2패로 맞서 5차전에 나선 세인트루이스는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장식해 피츠버그의 추격을 따돌렸다.

NL 승률 1위 팀인 세인트루이스는 12일 홈인 부시스타디움에서 이미 디비전시리즈를 통과한 다저스와 7전 4선승제 챔피언십시리즈를 시작한다.

세인트루이스는 통산 11차례 월드시리즈 타이틀을 가져가 뉴욕 양키스(27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트로피를 수집한 전통의 강호다.

2000년대 들어 9차례 포스트시즌에 진출, 2006년과 2011년 두 차례 월드시리즈 타이틀을 따냈다.

다저스와는 2009년 디비전시리즈 이후 4년 만에 포스트시즌에서 다시 맞붙는다. 당시 디비전시리즈에서는 다저스가 3연승으로 가볍게 카디널스를 꺾었다.

올 시즌 상대전적에서도 다저스가 4승 3패로 약간 앞서 있다.

한편 아메리칸 리그(AL) 디비전시리즈에서 2승 2패로 맞선 디트로이트와 오클랜드는 11일 오전 10시 최종 5차전을 치른다.

진격의 넥센, 3차전서 끝낼까

준PO, 오재영·노경은 선발대결 벼랑끝 두산 뒤집기 노려

11일 오후 6시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준플레이오프(PO·5전3승제) 3차전에서 PO 조기 마감과 막판 뒤집기를 놓고 좌완 투수 오재영(28·넥센)과 우완 노경은(29·두산)이 맞붙는다.

1, 2차전에서 모두 끝내기 안타로 승리,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초유의 끝내기 2연승을 달린 넥센은 올 시즌 되살아난 오재영을 앞세워 3차전에서 플레이오프 진출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다 잡은 승리를 이를 연속 9회말에 빼앗긴 두산은 올 시즌 10승 투수 가운데 한 명인 노경은을 선발로 내세운다.

2004년 넥센의 전신 현대 유니콘스에서 신인왕을 수상하고 나서 끝 모를 침체에 빠졌던 오재영은 올 시즌 중반부터 선발로 투입되며 '부활투'를 던졌다.

오재영은 8월 22일 목동 NC전에서 올 시즌 처음으로 선발 등판, 5이닝 1실점(비자책)으로 기대 이상의 호투를 펼쳐 2006년 4월 18일 잠실 두산전 이후 무려 2년683일 만에 선발승을 거두는 감격을 누렸다.

이날 승리를 포함, 오재영은 올 시즌 10경기에 출전해 4승 무패에 평균자책점 2.40으로 준수한 성적을 남겼다.

더스틴 니퍼트, 유희관과 함께 팀내에서 가장 안정적인 투구를 펼치는 노경은은 두산의 준PO 대역전극을 이끈다는 각오다.



11일 오후 6시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준플레이오프(PO·5전3승제) 3차전에서 두산 우완 투수 노경은(왼쪽)과 넥센 좌완 오재영이 맞붙는다.

데뷔 10년차이던 지난해 완벽히 탈바꿈하며 팀의 기동투수로 거듭난 노경은은 올 시즌 10승 10패를 거둬 유희관과 함께 토종 투수로서 10승 이상을 쌓았다.

평균자책점은 3.84를 찍어 유희관(3.53), 니퍼트(3.58)에 이어 팀 선발투수 가운데 세 번째로 낮다.

넥센을 상대로는 올 시즌 4경기에 등판해 평균자책점 6.04를 기록, 8개 상대팀 가운데 3번째로 나쁜 성적을 남겼다. 피안타율은 0.270으로 약간 높은 편이다.

그러나 잠실구장 마운드에서 서서는 안정적으로 공을 던져온 만큼 준PO 4차전에서도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노경은은 올 시즌 15차례 잠실 홈경기에 등판해 6승 3패를 쌓고, 평균자책점 3.22를 기록했다.

잠실에서의 피안타율은 0.228로 양호한 수준이다. 오재영과 노경은 모두 시즌 중 상대팀을 공략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단판에 준PO가 끝날 수 있는 중요한 길목인 만큼 은근히 다해 투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페텔 우승하면 시즌 1위 확정 13일 F1 일본 그랑프리

제바스티안 페텔(독일·레드불)이 13일 일본 스즈카 서킷에서 열리는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포뮬러 원(F1) 일본 그랑프리에서 시즌 우승 확정에 도전한다.

현재 랭킹 포인트 272점으로 2위 페르난도 알론소(스페인·페라리)를 77점 차로 앞서 있는 페텔은 이번 일본 대회에서 우승할 경우 시즌 타이틀 획득이 확정될 수 있다. 페텔이 우승하면 랭킹 포인트 25점을 받아 297점이 되고, 알론소가 9위를 할 경우 2점을 추가하면서 197점이 된다.

이렇게 되면 올해 남은 네 차례 경주에서 알론소가 모두 우승하고, 페텔은 모두 10위 밖으로 밀려나 297점에서 동률을 이룰 수 있다. 페텔이 최소한 공동 우승을 확보하는 셈이다.

만일 페텔이 우승하고 알론소가 10위 이하의 성적을 내면 페텔의 시즌 단독 1위가 확정된다.

1950년 창설된 F1에서 지금까지 4년 연속 종합 우승은 1954년부터 1957년까지 후안 마누엘 판지오(아르헨티나),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미하엘 슈마허(독일) 등 두 차례밖에 나오지 않은 대기록이다.

한편 페텔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일본 그랑프리에서 세 번이나 우승하는 등 강한 면모를 보였다. 또 이번 시즌 벨기에, 이탈리아, 싱가포르, 한국 대회에서 최근 4연승을 거두며 상승세를 타고 있어 13일 열리는 일본 그랑프리 결선 레이스에서도 '우승 후보 0순위'로 주목되고 있다.